

# 투박미의 극치... 고흥 '덤병 분청사기' 아세요

청자~백자 잇는 도자기... 운대리 일대 대규모 도요지 郡, 분청문화관 건립 추진 내달 착공 2016년말 완공



고려말~조선 초 초기, 청자와 현저히 다른 양상을 띠는 새로운 도자 양식이 출현한다. 바로 흰색으로 분칠을 한 '분청화 청사기'(粉粧灰靑沙器)이다. 청자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분방하고 활력에 넘치는 실용적인 형태와 다양한 분장(粉粧)기법 등이 특징이다. 분청사기는 분장과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에 따라 크게 상감기법, 인화기법, 철화기법, 귀얄기법, 담금(담병)기법 등 7가지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고흥 등 전남지역에서 유행한 담병 기법은 백토 물에 '담병' 담갔다가 꺼낸 뒤 유약을 입힌 것이다. 고흥군이 사업비 420억원을 투입해 두원면 운대리 일원에 (가칭)'담병 분청사기 문화관'과 문화공원,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문화공원과 청소년수련시설에 170억원, 문화관 건축과 설비에 210억원, 전시물 제작에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자와 백자 사이 잇는 '분청사기'> 담병 분청문화관은 지하 1층·지상 2층(건축연면적 9793㎡) 규모로 역사문화관, 실화문화관, 분청전시관, 기획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문화공원과 청소년수련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담병 분청문화관 건립 사업은 2016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전시실은 고흥의 '해양 교류사'를 통해 ▲들어서다 ▲마주하다 ▲빛어내다 ▲함께 나누다 ▲나아가다 등으로 구역을 세분해 고흥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대기적 흐름으로 보여준다. '들어서다'는 바닷길을 통해 고흥으로 진입하는 공간이고, '마주하다'는 고인돌 등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고흥을 보여준다. 또 '빛어내다'는 청자부터 백자까지 생산한 운대리 가마의 대표적인 분청사기를 소개하고, 한·중·일 삼국의 백토 분장 도자기를 비교 전시한다. '함께 나누다'는 고흥 출신 류몽인(1559~1623) 선생이 펴낸 조선 설화집 '어우야담'(於于野談)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국내외 설화문학을 제공하며, '나아가다'는 고흥을 빛낸 김일과 박지성 등 인물들과 명소를 소개한다. 사업부지인 운대리 일원은 청자 요지 5곳과 분청사기 요지 25곳 등 모두 30곳의

가마터가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요지(陶窯址)다. 더욱이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 제519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담금(담병) 기법은 귀얄과 같은 붓 자국이 없어서 표면이 차분하다. 대접이나 접시의 경우 손으로 굽을 잡아 그릇을 거꾸로 백토 물에 담갔다가 꺼내므로 굽 언저리에는 백토가 묻지 않고 흘러내린 곳만 있게 돼 매우 재미있는 추상성을 보인다.

분청사기 무늬 또한 대범한 모란담초와 모란, 연꽃, 풀과 꽃, 물고기 등을 생략하거나 추상화해 구김살 없는 표현을 보여준다.

<분청 문화관, 2016년 완공 목표>=군은 지난 2012년 5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같은 해 7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올 2월 토지매입(9만9885㎡)을 끝마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군은 다음달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6년 12월에 준공해 개관할 예정이다.

문화공원(부지 9만9885㎡)에는 류몽인 설화거리와 분청기법 전시장, 휴게마당 등이 조성되고, 청소년수련시설(부지 9만2289㎡)에는 숲속 아영장과 산책로를 비롯해 생태환경 학습장, 다목적 야와 공연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분청사기는 한국인의 심성과 생활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예술창작품"이라며 "정통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고흥의 모든 역사 문화자원과 고흥 담병 분청사기를 전시·관람·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보해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향유와 함께 문화관광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체코와 폴란드, 미국에서 보성을 찾은 차(茶) 바이어들이 보성 녹차밭을 둘러보고 있다.

## 놀라워라! 보성녹차

美·체코 등 차바이어 12명 다원 찾아 구입 타진

체코와 폴란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茶) 바이어 12명이 최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보성을 방문했다.

이번에 보성을 찾은 바이어들은 체코 프라하에 기반을 두고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소규모 차집을 운영하고 있는 '도브로 티'(Dobro Tea)의 매장 운영자들이다. 이들은 한국 차의 샘플 조사와 매장내 판매를 위한 제품 계약을 목적으로 보성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자체적인 사전조사와 군의 추천을 통해 보성을 대표하는 다원 7곳을 방문해 차밭 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생산된 차를 마셔보면서 수출량과 예비 가격 등 계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

또 CNN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풍경 31선'에 선정된 보성의 아름다운 차밭을

둘러본 후 한국차 박물관에서 가마솥 안의 찻잎을 두고 비벼지며 직접 차를 만들어 보며 한국 차문화를 체험했다.

아레스 주리나 씨는 "매장에서 주로 동양 차는 인도, 중국, 일본차를 중심으로 판매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국 녹차를 마셔보고 이번 한국행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규모는 작지만 업체들이 멋진 차밭을 소유하고 최고 품질의 차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보성 차의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USDA)·유럽(EU)·일본(JAS)의 국제 유기인증 획득했다. 또한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펼친 결과 세계적인 차 전문업체인 허스앤스 매장에서 보성차가 판매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구례군, 목재문화 체험장 만든다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 옛 효곡분교에 들어선다. <조감도>

구례군은 지난 201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1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폐교 건물을 철거한 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57억 원이 투입되는 목재문화 체험장은 부지 2만㎡에 지하 1층·지상 2층(전체면적 1792㎡) 규모로 목공예 체험장과 목공예 공방, 목재 전시실, 세미나실, 숲 도서관, 야외광장 등을 갖추게 된다.

군은 올해 주요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내년에 체험·전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2016년 개장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소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 목재문화 체험장과 연계한 효곡제 공원화사업, 숲속 오토캠핑장을 확대 조성해 광양만권 배후 도시인 우리 군을 산림문화 휴양단으로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kwangju.co.kr

## 곡성 교육문화회관 '길 위의 인문학' 선정

문화관광부 사업비 지원

곡성 교육문화회관(관장 한형배)이 2014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1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은 현장 속의 인문학과 생활 속의 쉬운 인문학 구현을 통해 책·현장·사람이 만나는 새로운 독서문화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곡성 교육문화회관은 '골짜기 나라 인문

학에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지역민의 삶의 터전인 곡성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강연과 탐방을 겸한 체험형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 육과를 중심으로 한 곡성의 동부권은 문학박사 손혜경 교수와, 섬진강을 비롯한 오곡면·죽곡면 등 서부권은 섬진강 도깨비마을' 김성범 촌장과, 곡성읍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은 곡성문화원 조준원 사무국장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곡성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인문학적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061-363-0672)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 고흥 우주체험센터 '우주 동아리' 회원 모집

청소년 대상 17일까지 접수

국립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NYSC·이하 우주체험 센터)는 오는 17일까지 중학교 이상 우주과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4년도 우주과학 동아리 신입회원을 선발한다. 우주체험 센터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64조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우주과학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은 주로 체험 활동과 단체 관측소에서 이뤄진다. 활동에 필요한

실험실과 실험장비, 교육인력 등은 우주체험센터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우주체험 센터는 물리과학 실험체실과 항공우주 실험체실, 천문관측 실습실 등 물적 인프라와 항공우주과학 등을 전공한 인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동아리 가입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우주체험센터 홈페이지(www.nysc.or.kr)에서 하면 된다. 우주체험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종합력, 융합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TV조선 특별기획드라마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했던 이들의 사랑과 야망!

최수종 손태영 류진 최철호 이인혜 독고영재 정호빈 4월 25일부터 매주 금·토 밤 11시 방송

박상면 홍일권 김진근 이종수 공정환 이정용 최규한 이기찬 현석 김민경 전수경 이철민 고명환 정명환 이영후 이원석 조영서 김권 김예원 윤홍빈 김준준